

용산구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Current Operating Status and Activation Plan of Public Library in Yongsan-gu

이 혜 은 (Hye-Eun Lee)**
신 동 희 (Donghee Shin)***
류 희 경 (Hee-Kyeong Ryu)****
전 경 선 (Kyungsun Jeon)*****

초 록

본 연구는 용산구 공공도서관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용산구 도서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현황 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지역 특성, 도서관 시설, 인력, 장서 및 예산, 프로그램 등의 기본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요인을 기반으로 용산구 지역 여건 및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사서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용산구 도서관의 문제점 및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표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수 확충, 독서문화 확산 및 지역특화프로그램 개발, 인력 및 장서 확충, 지역사회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olve development strategies used as primary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plan establishment of public libraries in Yongsan-gu. To reach the aims of this research, this study examined precedent studies related to the status of domestic libraries operation and development plan. This research derived integral factors such as regional characteristics, library facilities, human resources, collections, and budgets to be considered for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s. By using in-depth interviews with librarians and professionals, the operational and development plans of public libraries in Yongsan-gu were explored. The findings presented in this study suggested development strategies such as an expansion of library infrastructure and reading culture and development of regional specialization programs and redesign the management system.

키워드: 공공도서관, 용산구 도서관, 운영 현황, 활성화 방안
Public Libraries, Yongsan-gu Libraries, Operating Status, Activation Plan

* 본 연구는 2020년 “용산구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helee@sookmyung.ac.kr) (제1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shindh@sookmyung.ac.kr) (공동저자)
**** 중원대학교도서관 관장(hkryu88@naver.com) (공동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빙교수(ksjeon@sookmyung.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1년 2월 25일 논문심사일자 : 2021년 3월 1일 게재확정일자 : 2021년 3월 22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1): 315-334, 2021.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1.32.1.315>

※ Copyright © 2021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에게 디지털 정보자원을 포함한 정보이용 및 평생학습과 독서, 문화 활동 등을 제공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도서관은 지역공동체의 중심에서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진화해야 하며, 지역공동체의 소통과 문화의 중심으로 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즉 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사회적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공공도서관협회(Public Library Association)의 경우 '전략적 계획(PLA Strategic Plan 2018-2022)'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변화(Transformation)를 도서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도서관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도서관 발전계획 및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특화된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영희 외, 2020). 즉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교육 및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사회적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함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곽동철, 윤정옥, 김용환, 2020; Owoeye &

John-Okeke, 2012).

용산구 역시 용산구 청파도서관 개관 10주년 및 용산꿈나무도서관 개관(2017),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도심기능 개편,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인구변화 등 용산구 지역사회 변화를 반영한 지역특성에 맞는 도서관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용산구는 2019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도서관 총 1,257개관 중 구립도서관 2개관, 교육청 소속 도서관 2개관, 작은도서관 27개관 총 31개관으로 자치구 면적 및 인구대비 공공도서관 현황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도서관의 양적·질적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발전계획 및 실행방안 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용산구 공공도서관 현황 분석과 사서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용산구 공공도서관의 운영 현황과 한계점 등을 파악하고, 도서관의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여 향후 용산구 도서관 정책연구 및 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용산구 공공도서관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첫째,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도서관 현황 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지역 현황, 도서관 시설 및 인력, 장서, 예산, 프로그램 등의 기본 요인을 도출하였다. 둘째, 이러한 요인을 기반으로 용산구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실태와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셋째, 용산구 도서관 사서 및 전문가를 대상

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용산구 도서관의 문제점 및 운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넷째, 현황 분석 및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용산구 공공도서관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선행연구

도서관의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는 크게 관중별 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와 특정 지자체 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도서관의 발전계획 및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도서관의 운영 현황 분석을 위한 요인으로는 도서관 시설 및 환경, 인력, 장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주된 연구방법으로는 도서관 이용자 및 비이용자, 도서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식 및 수요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윤금(2010)은 공공어린이도서관 운영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어린이서비스 실태와 한계점 및 어린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요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9개관 공공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장 및 사서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서관 운영 방법, 도서관의 비전, 어린이사서의 자격 및 역할, 어린이서비스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 운영기관에 대한 선정기준 확립과 도서관장의 전문성과 리더십, 어린이사서의 계속 교육 등을 활성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장덕현(2018)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체제와 인력, 장서, 프로그램 현황 등을 분석하고

운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공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사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이었으며, 장서의 전문적인 관리와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장윤금 외(2018)는 병영도서관의 발전과정 및 운영 체제, 시설 및 장서 현황, 주요 사업 현황 등의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병영도서관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병영도서관 운영 활성화 요인으로 법적 기반 강화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을 위한 전반적 환경 개선, 수요자 중심의 장서구성, 장병들의 요구를 반영한 군 유형별, 부대 기능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법/제도, 인프라/시설, 장서, 서비스/인력 등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노영희, 신영지(2019)는 병원 내 의학도서관의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하여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학도서관 서비스 대상, 장서, 시설 및 환경, 직원, 서비스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 운영 시 애로사항, 향후 도서관에서 제공했으면 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견 등 도서관의 수요조사 및 인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학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자체 도서관의 운영 현황 분석과 관련된 연구로는 장덕현, 강성권(2016)이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현황 분석을 통하여 발전과제를 제안하였다. 부산광역시 지역 여건과 공공도서관의 시설, 인력, 장서 등의 도서관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활성화, 외국인 및 다문화서비스 확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시설 개선, 직원 및 장서 확충 방안, 지역대표도서관 권한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5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현실(2018)은 전라북도 익산시의 공공도서관 발전전략을 제안하고자 익산시 인구 현황 및 도시특성,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1관당 인구수, 장서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 인프라 확충, 권역별 도서관 운영 및 특성화, 도서관 신설 및 운영모델이라는 도서관 발전전략을 제안하였다. 윤혜영(2019)은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24개 공공도서관의 일반현황과 행정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일반현황으로는 시설 및 인력, 장서, 예산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곽동철, 윤정옥, 김용환(2020)은 강원도 교육청 소속 22개 교육문화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강원도 교육문화관(도서관) 현황 및 장서 현황, 프로그램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용자 설문 및 도서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교육문화관(도서관)의 사명과 비전, 주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분석 및 인식조사(설문 및 인터뷰)를 중심으로 수행

되었으며, 특히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 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도서관의 시설, 장서, 프로그램, 예산 등의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지자체 도서관의 운영 현황 분석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역적 조건을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용산구 도서관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사서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3. 용산구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분석

3.1 용산구 지역 현황

용산구는 2019년 기준 16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인구는 245,185명으로 남자 119,599명(48.8%), 여자 125,586명(51.2%)의 분포를 보인다. 세대수는 총 110,126 세대로 세대 당 인구수는 2.08명으로 인구수와 세대수 모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번째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249,914명에서

<표 1> 용산구 인구 추이(2019년 기준)

(단위: 명, 세대)			
구분	2014	2019	증감
인 구 수	249,914	245,185	-4,729
세 대 수	108,429	110,126	1,697
65세 이상	34,896	38,791	3,895
출 생 아	2,129	1,203	-926

출처: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dataService/boardList.do#submenu1> (2019년 12월 기준)

2019년 245,185명으로 4,729명(1.9%) 감소하였으나 세대수는 1,697세대(1.6%)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용산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14년 14.0%에서 2019년 1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는 2014년 2,129(0.9%)명에서 2019년 1,203(0.5%)명으로 감소하였다.

용산구의 연령별 인구는 <표 2>와 같이 30-39세 인구가 42,255명으로 전체 인구의 17.2%로 가장 많았으며, 40-49세(16.1%), 50-59세(15.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수는 총 16,515명 전체 인구의 6.7%로 2014년 13,963명(5.6%)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용산구의 인구변화 및 고령화는 중장년층 이상을 위한 서비스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또한 청·장년 및 외국인의 유입이 많은 용산구는 글로벌 시대를 대응하는 스마트 기술, 세계시민 교육 등의 지역특화콘텐츠 개발과 다원화된 사회구성원들의 통합과 문화기반시설로서의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구성 및 다양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의 도시·산업 분야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도심기능개편, 한남재정비촉진지구(한남뉴타운) 등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신도시 개발과 사업시설관리,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가 증가하는 추세이다(용산구, 2019). 이러한 영향으로 용산구는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소득향상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로 주민들의 다양한 독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성이 용이한 도서관의 배치 및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용산구 공공도서관 현황

3.2.1 시설 현황

용산구는 2019년 기준 구립도서관 2개관, 교육청 소속 도서관 2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16개관, 사립 작은도서관 11개관 총 31개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구

<표 2> 용산구 연령별 인구현황 및 비율(2019년 기준)

구분	인구수(명)	비율(%)
총계	245,185	100
0~9세	15,637	6.4
10~19세	17,515	7.1
20~29세	36,290	14.8
30~39세	42,255	17.2
40~49세	39,324	16.1
50~59세	38,564	15.7
60~69세	28,222	11.5
70~79세	17,285	7.1
80세 이상	10,093	4.1

출처: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dataService/boardList.do#submenu1> (2019년 12월 기준)

분하면 구립도서관 2개관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 2개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전체 공공도서관 현황을 설명하기 위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용산구의 공공도서관 현황은 <표 3>과 같이 교육청 소속 도서관 2개관을 제외하면 구립도서관 2개관으로 서울시 자치구 면적 및 인구대비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용산구 구립도서관은 규모 면에서 1천㎡ 이하로 타 지자체의 공공도서관과 동일하게 그 역할과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서울시 자치구 도서관 현황(2019년 기준)

자치구	인구 (명)	면적 (km)	구립도서관 수				국립/ 시립/ 교육청/ 사립	작은 도서관	장애인 (이동 도서관)
			합계	3천㎡ 이상	1천 ~3천	1천 이하			
강남구	545,169	39.5	12	-	2	10	3	39	1
강동구	436,067	24.59	5	-	4	1	3	43	2(2)
강북구	313,954	23.6	7	1	1	5	-	44	-
강서구	591,796	41.44	8	1	2	5	1	69	1
관악구	500,094	29.57	5	1	-	4	-	50	1(1)
광진구	351,350	17.06	4	1	1	2	-	32	-
구로구	406,664	20.12	9	-	1	8	3	80	-
금천구	232,810	13.02	4	-	3	1	-	24	-
노원구	532,905	35.44	10	2	5	3	1	36	1
도봉구	333,362	20.67	6	1	2	3	1	34	-
동대문구	346,194	14.22	4	2	-	2	1	38	-
동작구	395,963	16.35	5	-	1	4	1	45	-
마포구	374,035	23.85	4	1	1	2	2	31	-
서대문구	309,397	17.63	3	-	1	2	1	31	1
서초구	430,826	46.99	7	1	2	4	1	43	-
성동구	300,889	16.86	6	1	4	1	-	24	-
성북구	442,650	24.57	12	1	2	9	-	62	1
송파구	675,961	33.87	9	1	1	7	3	69	-
양천구	458,165	17.41	8	-	1	7	1	37	-
영등포구	367,678	24.55	4	-	3	1	2	42	-
용산구	245,185	21.87	2	-	1	1	2	27	-
은평구	480,032	29.71	8	1	5	2	-	72	-
종로구	151,290	23.91	3	-	-	3	4	24	1
중구	126,171	9.96	3	-	1	2	2	17	-
중랑구	397,015	18.5	5	1	2	2	-	50	-
총계	9,729,107	605.24	153	16	46	91	32	1,063	9

출처: 용산구청 내부자료 (통합보조금 기준) (2019년 12월 기준)

또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별 공공도서관 현황'은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 4개관이 용산구 북부의 청과동, 원효로, 후암동에 치중되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도서관 접근성 및 지역 내 균형적 지식문화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의 균형적 조성 과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구립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은 약 713㎡로 전국 지자체 약 2,442㎡ 및 서울시 약 1,442㎡의 공공도서관 평균 연면적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 5>와 같이 청과도서관의 경우 연면적이 323㎡로 작은 규모일 뿐만 아니라 기존 관공서 건물을 리모델링한 복합시설로서 공간구성이 도서관에 최적화되어있지 않아 도서관의 순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 최적의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적절한 공간의 확보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필수적이다 (장덕현, 강성권, 2016). 이러한 측면에서 용산구는 신규 도서관 건립 등 지속적인 도서관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

3.2.2 인력 현황

용산구 공공도서관 인력 현황은 총 133명으로 사서직(정규직 61명, 비정규직 14명) 75명, 행정직(정규직 9명) 9명, 기타(정규직 11명, 비정규직 38명) 4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립도서관 2개관의 경우 사서직원 총 10명(청과도서관 3명,

<표 4> 용산구 행정구역별 공공도서관 현황(2019년 기준)

행정 현황		도서관 현황				
행정 구역	인구 수(명)	도서관 수(개)	설립 주체	운영 방식	도서관명 (개관일)	도서관 위치
청과동	20,661	1	지자체	위탁	청과도서관 (2009.08)	
원효로 1동	16,630	1			꿈나무도서관 (2017.12)	
후암동	18,445	2	교육청	교육청	남산도서관 (1922.10)	
					용산도서관 (1981.0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www.libsta.go.kr (2019년 12월 기준)

<표 5> 용산구 구립도서관 시설 현황(2019년 기준)

설립주체	도서관명	도서관부지 면적(㎡)	연면적(㎡)	좌석수(석)	1관당 봉사대상 인구 수
지자체	청과도서관	891.00	323.00	86	20,661
	용산 꿈나무도서관	5,360.00	1,103.78	150	16,63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www.libsta.go.kr (2019년 12월 기준)

〈표 6〉 용산구 공공도서관 인력 현황(2019년 기준)

설립주체	도서관명	직원 수(명)								계
		사서직		행정직		전산직		기타*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지자체	청파도서관	3	0	0	-	0	-	0	0	3
	용산 꿈나무도서관	7	0	0	-	0	-	0	0	7
교육청	남산도서관	32	11	5	-	0	-	5	26	79
	용산도서관	19	3	4	-	0	-	6	12	44
계		61	14	9	-	0	-	11	38	13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www.libsta.go.kr (2019년 12월 기준)

* 기타는 사서직, 행정직, 전산직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직렬을 의미

용산 꿈나무도서관 7명)이 모두 정규직 사서직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 사서직원(정규직)의 수는 5명으로 서울시 평균 사서직원(정규직) 6.6명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도서관 사서 배치 인원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면적 및 장서 기준에 따라 사서를 배치할 수 있다.¹⁾ 용산구 구립도서관의 경우 이러한 법적 기준 대비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 8명의 사서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2.3 장서 및 예산 현황

용산구 공공도서관의 장서수는 약 87만 5천 권으로 1관당 평균 22만권을 소장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제외한 구립도서관 2개관의 장서수는 총 약 7만5천권으로 1관당 평균 3만5천권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국 지자체 평균 10만권 및 서울시 약 8만3천권이라는 1관당 장서수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까지 국민 1인당 장서수를 2.5권 수준으로 확충하고자 한다. 그러나 용산구의 경우 구립도서관 기준 1인당 장서수는 0.3권으로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장서 확충이 필요하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산구 공공도서관의 2019년 결산액은 약 62억 9천만원으로 인

〈표 7〉 용산구 구립도서관 법정기준 사서수 대비 인력 현황(2019년 기준)

구분	인력 (정규직 현원)	법정기준 사서수(명)			면적(㎡)	장서수(권)
		계	면적기준	장서기준		
청파도서관	3	8	3	5	323	33,379
용산 꿈나무도서관	7	10	5	5	1,103.78	37,119

1)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000권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6,000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 8〉 용산구 공공도서관 장서 및 예산 현황(2019년 기준)

설립주체	도서관명	장서수(권)	통계년도 집행 결산액(천원)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지자체	청파도서관	33,379	41,511	130,567	73,300
	용산 꿈나무도서관	37,119	81,334	243,609	124,062
교육청	남산도서관	510,840	278,163	536,398	1,840,242
	용산도서관	292,769	208,476	2,098,875	629,740
계		874,107	609,484	3,009,449	2,667,34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www.libsta.go.kr (2019년 12월 기준)

건비 약 30억원, 운영비 약 26억 7천만원, 자료 구입비 약 6억 1천만원으로 나타났으나, 구립 도서관 2개관의 경우 인건비 약 3억 8천만원, 운영비 약 2억원, 도서구입비 약 1억 3천만원으로 모든 영역에서 서울시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예산 항목별 결산액의 비율은 인건비 47.9%, 운영비 42.4%, 자료구입비 9.7%로 『한국도서관기준』(2013)에서 제시하는 예산배정 비율 인건비 45-55%, 자료구입비 20-25%, 기타 운영비(건물유지, 행사 등) 25-30%와 비교해 볼 때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중은 높고, 자료구입비의 비율은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운영비의 배정비율은 낮추고 자료구입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서관별 특화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자료구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2.4 프로그램 현황

용산구 구립도서관은 독서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지역사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내용의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독서진흥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령별 내게 맞는 책, 내가 찾는 책 등 이용자 맞춤형 북큐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용산구의 지역적 상황인 도심기능개편, 국제화,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 고령화 등 지역사회 변화를 반영한 지역특화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산 꿈나무도서관과 청파도서관의 프로그램은 주이용자의 차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용산 꿈나무도서관의 경

〈표 9〉 용산구 구립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현황(2019년 기준)

도서관명	독서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프로그램 수(개)	실시 횟수	참가자 수(명)	프로그램 수(개)	실시 횟수	참가자 수(명)
청파도서관	9	5	1,381	22	20	3,341
용산꿈나무도서관	5	32	596	35	32	3,024
총계	14	37	1,977	57	52	6,36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www.libsta.go.kr (2019년 12월 기준)

우 꿈나무 종합타운 복합건물의 건물 특성상 어린이와 가족 이용자들이 많다. 반면 청파도서관은 장년층 남성 이용자들이 주이용자로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역 서부 인근에 위치에 있는 지리적 특성상 노숙자들이 도서관을 컴퓨터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용산구 구립도서관은 도서관별 이용계층과 행정구역별 요구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 지역에 위치한 도서관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특화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3.3 사서 및 전문가 인터뷰

3.3.1 인터뷰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용산구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및 한계점,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용산구 구립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는 사서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립도서관의 실질적인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공공도서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용산구 도서관 내부의 의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평가되는 용산구 도서관의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도 모색

하고자 하였다.

인터뷰는 총 2차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1차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용산구 구립도서관 사서(관장 포함) 총 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표 10〉 참조).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2020년 6월 5일 약 60분씩 용산꿈나무도서관 사서 4명과 청파도서관 사서 3명을 대상으로 각 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2차 심층인터뷰는 2020년 8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공공도서관 정책전공 교수(1명), 문화정책전공 교수(1명), 공공도서관 관장(2명) 등 총 4명을 대상으로 연구자와 면대면 인터뷰 또는 서면 및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표 11〉 참조). 면담시간은 면대면의 경우 대략 60분-90분, 전화인터뷰는 대략 40분-60분 동안 진행되었다. 인터뷰 질문지는 사전에 인터뷰 대상자에게 미리 배포되었으며, 모든 인터뷰는 연구자에 의해 녹취되어 전사(transcribing)되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면담지는 있으나 가능한 질문의 내용을 통제하지 않고 응답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선행연구의 인식조사에서 도출된 항목을 보완한 질문으로 용산구 도서관의 역

〈표 10〉 사서 인터뷰 대상자

기관	면담자	성별	연령대	직위	근무 기간
A	P1	여	30대	사서	1-5년
A	P2	여	30대	사서	1-5년
A	P3	여	30대	사서	5-10년
A	P4	여	30대	사서(관장)	5-10년
B	P5	여	30대	사서	1-5년
B	P6	여	30대	사서	5-10년
B	P7	여	40대	사서(관장)	15년 이상

〈표 11〉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기관	면담자	성별	연령대	직위	근무 기간
A	S1	여	40대	교수	5-10년
B	S2	남	50대	교수	15-20년
C	S3	여	50대	관장	20년 이상
D	S4	여	50대	관장	20년 이상

할 및 기능, 시설 및 공간 개선, 신규 도서관 건립 시 고려사항, 특화프로그램 및 서비스, 향후 도서관 운영 방향 및 활성화 방안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3.3.2 인터뷰 분석 결과

용산구 구립도서관 사서 및 공공도서관 관련 전문가 총 1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인터뷰의 내용은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으로 용산구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시설 및 공간, 신규 도서관 건립 시 고려사항, 특화프로그램 및 서비스, 향후 도서관 운영 방향 및 활성화 방안 등 5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용산구 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응답으로 사서와 전문가 모두 지역 커뮤니티 및 지역공동체의 문화중심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서들은 용산구 구정방향을 고려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제공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분야의 도서(지식 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용산구의 도서관이 지역사회 지식정보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풀뿌리 독서공동체 조직 및 활성화 등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기관과 문화휴식공간으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용산구 도서관의 시설 및 공간 관련 답

변으로는 사서들 모두 공간부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꿈나무도서관의 경우 도서구입비가 많아도 장서를 보유할 공간이 부족하고, 청파도서관의 경우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공간이 부족하여 경로당 등 도서관 내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외부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 시설 중에서는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여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사서들은 도서관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서관 시설(공간, 자료, 인력 등) 확충과 특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대표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용산구 대표도서관 건립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미래 용산을 상징하는 향후 서울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반영한 대표도서관 설립과 전문인력을 상설 배치한 전문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위상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용산구 내 신규 도서관 건립의 경우 사서 및 전문가 모두 용산구 대표도서관 건립과 용산의 랜드마크가 될 대규모 도서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용산구 지역 내 모든 공공도서관의 자료 소장 공간 확보를 위한 대표도서관 내 또는 별도의 공간에 용산구 구립도서관 공동보존 서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용산구 대표도서관 건립은 용산구의 중심지 또는 용산공원 내 혹은 용산 민족공원(효창공원) 부지가 제안되었으며, 대표도서관 1개관과 중규모 도서관 2-3개관이 신규 건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다양한 주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역세권 등 교통편리지역 부지 선정 혹은 기존 공공건물 재건축을 통한 도서관 건립도 제안하였다. 중규모 도서관은 복합문화 공간으로 용산구 전역에 서비스할 수 있는 위치에 적절히 분산 배치되어 건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용산구는 정주 인구가 적으나,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이므로 정주 인구를 위한 공동체 활동(독서동아리 등) 공간과 유동인구를 위한 정보 컴퓨터(정보검색, 강좌 등)의 공간이 필요하며, 기능적인 열람실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도서관 공간보다는 한데 어울려 각자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오픈 플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넷째, 용산구 도서관만의 특화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련 응답 결과 사서와 전문가 모두 용산구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요구를 전망하여 지역 특색화를 고려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은 용산구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세계중심도시로서의 국제화, 글로벌화를 표방하고 있으며 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용산구의 지역적 상황과 기(既) 수립된 종합발전계획의 방향에 맞추어 '국제화'를 주제로 특화도서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용산구는 서울의 도심권으로 청장년과 외국인의 비율이 높으므로 4차 산업시대 미

래를 준비하고, 글로벌 시대를 대응하는 스마트 기술, 세계시민 등의 특화콘텐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사서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능기부 프로그램, 독서동아리 및 독서모임 등 주민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독서문화 환경 및 차별화된 도서관 서비스와 문해교육, 독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섯째, 용산구 도서관의 활성화 방안 관련 응답내용 분석 결과 사서들은 도서관 수 확충과 대표도서관 건립 자체가 도서관 활성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도서관을 처음 방문하는 이용자도 쉽게 도서관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버스정류장 명칭 변경 등 직접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주민요구 및 도서관 운영주체, 정부 및 서울시 정책기조에 맞춘 활성화 방안 설정 등 다각적 차원에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분절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각각의 역할 구분 관점에서 시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주민 중심의 지적욕구 공공화를 위한 도서관 이용자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고립되고, 개별화되고 있는 사회 구성원의 치유를 위한 정보기술과 독서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3.4 소결

용산구의 지역 현황과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용산구는 도서관 수 확충을 통한 도서관 인프라 확대와 용산구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용산구는 서울시 자치구 면적 및 인구 대비, 지역 내 균형적 지식문화 제공을 위한 대표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독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성이 용이한 도서관의 배치 및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도 조사되었다. 특히 규모 면에서 용산구 구립도서관 2개관은 1천㎡ 이하로 타 지자체의 공공도서관과 동일하게 그 역할과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3천㎡ 이상의 큰 규모 도서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서 및 전문가 인터뷰 분석 결과 역시 용산구의 대표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수 확충이 필요하며, 대표도서관은 용산구의 랜드마크 기능 및 복합문화공간 확충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용산구의 도시·산업 발전 및 인구 변화는 다원화된 이용자들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및 공간 구성,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용산구의 지역사회 변화를 반영한 '국제화', '용산 역사' 등의 지역특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은 사서와 전문가 모두 강조하였다. 또한 도서관별 이용 계층과 행정구역별 요구의 차이를 고려한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향후 신규 도서관 건립 및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도서관 인력 및 장서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용산구는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도서관의 면적 및 장서 기준 대비 추가 8명의 사서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터뷰 결과 사서들은 강조하였다. 또한 용산구 구립도서관의 1관당 장서수는 평균 3만5천권으로 전국 지자체 평균 10만권 및 서울시 약 8만3천권이라는 1관당 장서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장서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용산구 도서관 활성화 방안

본 연구는 용산구 도서관의 운영 현황 분석과 사서 및 전문가 인터뷰 분석결과, 공공도서관 관련 '도서관 운영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인프라,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인력 및 운영 등의 측면에서 용산구 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4.1 대표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수 확충

용산구 공공도서관은 구립도서관 2개관, 교육청 소속 도서관 2개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면적 및 인구대비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구립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단독건물이 아닌 기존 관공서 건물을 리모델링한 복합시설의 1개층을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 역시 도서관 시설 및 공간 확충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대표도서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사서들은 도서관 수 확충과 대표도서관 건립 자체가 도서관 활성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까지 인구 약 3.5만 명당 1개관 수준으로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자 한다. 용산구의 경우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인구 245,185명으로 1관당 인구수는 61,296명으로 총 7개관의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다. 용산구는 현재 4개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으나 구립도서관은 2개관으로 5개관의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

용산구 공공도서관의 위치는 북부 지역인 청파동, 원효로, 후암동에 치중되어 있어 도서관의 균형적 구성과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로 주민들의 다양한 독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성이 용이한 U-도서관(스마트도서관)의 배치 및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U-도서관의 도입을 위한 위치 선정의 우선순위 결정은 접근성, 이용편리성, 서비스 제공 시급성 등의 항목별 평가표를 작성하되 향후 용산구 발전계획에 따라 그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 반영 및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U-도서관의 도입은 도서관의 시공간 제약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접근성, 유동인구 및 지역 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1) 정보소외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및 장소, 2) 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포인트, 3) 주민들의 도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하철 역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2 독서문화확산 및 지역특화프로그램 개발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9-2023)」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도서관이 생애주기별로 이용자의 독서요인과 수요를 파악하여 평생동안 독서가 가능하도록 돕고, 개별 독서정책과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용산구의 경우 인구변화 및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이란 영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식정보, 강좌 및 교육, 문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용산구는 행정구역별 인구비율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용산구의 행정구역 연령별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0-19세는 6,139명(18.5%)로 이촌1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9세는 청파동(12.2%), 30-39세는 한남동(11.4%), 40-49세는 이촌1동(13.6%)

<표 12> 1관당 인구수에 따른 공공도서관 규모계획 기준

용산구 기준연도	인구수(명)	1관당 인구수	필요 도서관수	공공도서관 현황		
				계	구립	교육청
2019	245,185	61,296	7	4	2	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노년기 등 다양한 연령별, 집단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유아기에서 노인까지 독서를 습관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서관이 위치한 각 지역의 주이용자의 차이를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특화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 꿈나무도서관의 경우 꿈나무 종합타운 복합건물의 건물 특성상 어린이와 가족 이용자들이 많아 어린이 및 청소년, 가족 대상 특화프로그램과 꿈나무 종합타운 내 시설을 활용한 문화, 체육, 요리 등의 특화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다. 청파도서관은 장년층 남성 이용자와 서울역 서부 인근에 위치한 특성상 노숙자들이 도서관을 컴퓨터 이용하는 상황으로 성인 및 정보소외계층 대상 특화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도서관에서 다양한 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별로 특화된 주제를 개발한다면 이용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특화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경우 청·장년 및 외국인의 유입이 많은 용산구는 지역의 환경적, 역사적·인문학적 콘텐츠를 도서관 계획 및 운영에 반영하고, 용산구 도서관별 이용계층과 행정구역별 요구의 차이를 고려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특화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2030 용산구 중장기 발전계획'의 방향에 맞춘 '국제화', '용산 역사'를 주제로 지역특화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신규 도서관 건립 시 지역특화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서관 건축 및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특화프로그램은 도서관별로 장서 및 시설의 일부를 특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용산구 대표 도서관이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수집하는 장서 및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해서 활성화되어야 하며, 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역 내 유관기관(학교,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자료를 아카이빙하고 발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3 인력 및 장서 확충

공공도서관의 조직 및 인력은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용산구는 신규 도서관 건립 시 지역중앙관, 거점도서관, 분관 등의 도서관 지위 및 지역사회 특징과 도서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의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용산구 소재 도서관은 총 31개관으로 구립도서관 2개관은 모두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공립 작은도서관 16개관 가운데 14개관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 2개관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서관 운영주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개별 도서관의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는 지역주민 전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도서관 운영주체에 따른 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용산구 구립도서관은 사서직원 총 10명으로 모두 정규직 사서직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평균 사서직원(정규직)의 수는 5명으로 서울시 평균 사서직원(정규직) 6.6명에 비해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법 시행령」 도서관 면적

및 장서기준 대비 추가 8명의 인력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인력의 수준은 건물 수, 건물크기와 배치도, 각 건물 내 부서의 수, 이용 수준, 도서관 외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전문기술직원의 필요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서의 전문성 강화는 효율적 인력 운영의 필요조건으로 이를 위한 계속 교육 및 훈련 등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기회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용산구 구립도서관의 장서수는 총 약 7.5천 권으로 1관당 평균 3.5천권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 평균 10만권 및 서울시 약 8.3천권이라는 1관당 장서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장서수도 0.3권으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 2023년까지 확충하고자 하는 국민 1인당 장서수 2.5권에도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장서 확충이 필요하다. 다만, 도서 선정의 경우 Covid-19 상황에서 전자책, 전자도서관, 오디오북과 같은 전자책의 이용 증가를 고려하여 도서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지역사회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는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협력체계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도서관계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경계 없는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즉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도서관 협력네트워크를 구

축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도서관 자원을 공유하고 동시에 지역주민의 도서관 접근성을 강화하여 거주지 혹은 근무지에서 편리하게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킬 것이다.

용산구의 경우 용산 꿈나무도서관과 청파도서관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작은도서관 등 다른 도서관 간의 협력사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분절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각각의 역할 구분 관점에서 시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의 협력 가능 분야로는 장서, 인력, 재정, 프로그램, 교육, 장비 등이 있으며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관기관 간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력과 자원을 공유하는 등 자원에 대한 공동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이러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용산구 공공도서관 현황 분석과 사서 및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하여 용산구 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도서관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공공도서관 현황 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지역특성, 도서관

시설 및 인력, 장서, 예산, 프로그램 등의 분석 요인을 도출하였다.

둘째, 이러한 요인을 기반으로 용산구 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용산구의 지역적 상황인 도심기능 개편, 인구변화와 고령화, 청·장년 및 외국인의 유입 등 다원화된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산구는 지자체 소속 구립도서관이 2개관으로 서울시 자치구 면적 및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현황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위치 또한 용산구 북부의 청과동, 원효로, 후암동에 치중되어 있어 신규 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의 균형적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용산구 구립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 도서관 면적 및 장서기준 대비 추가 8명의 사서직원이 충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서수는 총 약 7만5천권 1관당 평균 3만5천권으로 전국 지자체 및 서울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산 항목별 결산액의 비율은 인건비 47.9%, 운영비 42.4%, 자료구입비 9.7%로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하는 예산배정비율과 비교해 볼 때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중은 높고, 자료구입비의 비율은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립도서관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사회 변화를 반영한 지역특화프로그램 개발과 도서관별 이용계층과 행정구역별 요구의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특화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용산구 구립도서관 사서 및 도서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사서 및 전문가 모두 용산구의 공공도서관 역

할 및 기능이 지역 커뮤니티와 지역공동체의 문화중심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용산구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요구를 전망하여 지역특성화를 고려한 특화프로그램 및 서비스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용산구 내 신규 도서관 건립의 경우 대표도서관 건립 및 지역 내 균형적 지식문화 제공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용산구 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사서들은 도서관 수 확충과 대표도서관 건립 자체가 도서관 활성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주민요구 및 도서관 운영주체, 정부 및 서울시 정책기조에 맞춘 목표와 실행방안 설정 등 다각적 차원에서의 조사 및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넷째, 용산구의 지역여건 및 도서관 현황 분석, 사서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활성화 방안에는 1) 용산구 신규 도서관 건립 및 U-도서관 도입 등 도서관 인프라 확대를 위한 '대표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수 확충', 2)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독서문화 확산 및 지역 특화프로그램 개발', 3) 도서관 자원, 조직 및 인력 개선을 위한 '인력 및 장서 확충', 4) 도서관의 운영체계 효율화를 위한 '지역사회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용산구 도서관의 활성화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용산구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향후 지역주민의 인식 및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미래 수요가 반영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 시행을 위한 도서관 발전계획 수

립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립 작은도서관 16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11개관 총 31개관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용산구의 작

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현황과 한계점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동철, 윤정옥, 김용환 (2020). 강원도 교육문화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3), 21-39.
- 노영희, 신영지 (2019). 병원 내 의학도서관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2), 61-96.
- 노영희, 장인호, 강지혜, 신영지, 박우정 (2020). 김포시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1), 227-253.
-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04호.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2019).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9-2023).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0).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출처: www.libsta.go.kr
- 서울특별시 (2020).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출처: <http://data.seoul.go.kr/dataService/boardList.do#submenu1>
- 용산구 (2019). 제33회 용산 통계연보. 서울: 용산구.
- 윤혜영 (2019).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운영현황과 발전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2), 69-90.
- 이현실 (2018). 익산시 공공도서관 발전 전략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3), 429-458.
- 장덕현 (2018).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과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73-91.
- 장덕현, 강성권 (2016).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현황과 발전과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 129-148.
- 장윤금 (2010). 공공어린이도서관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1), 199-215.
- 장윤금, 이지수, 이혜영, 전경선 (2018). 병영도서관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3), 321-337.
- 한국도서관협회 (2013).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Owoeye, J. & John-Okeke, R. (2012).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Libraries: A Survey of Selected Public Libraries in Lagos State, Nigeria. Public Library Quarterly, 31(3), 237-245.

Public Library Association (2018). PLA Strategic Plan 2018-2022. Available:
http://www.ala.org/pla/sites/ala.org.pla/files/content/about/strategicplan/20182022_PLAstrategicPlan_Web.pdf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D. H. & Kang, S. K. (2016). Current Status and Issues in Public Library Advancement Plan of Busa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1), 129-148.
- Chang, D. H. (2018). An Empirical Study on the Operation of Public Small Libraries in K District of Busa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4), 73-91.
- Chang, Y. K. (2010). A Study to Facilitate Public Children's Library Operations and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1), 199-215.
- Chang, Y. K., Lee, J. S., Lee, H. Y., & Jeon, K. S. (2018). Current Operating Structures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Korean Military Libraries. *Journal of the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3), 321-337.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0).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ies Act. Available: <http://www.law.go.kr/법령/도서관법시행령>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Korean library standards.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wack, D. C., Yoon, C. O., & Kim, Y. H. (2020). A Research on the Mid- and Long-term Strategic Plan for Developing Gangw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3), 21-39.
- Lee, H. S.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Public Library in Iksa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3), 429-458.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The 3rd Reading Culture Promotion Basic plan Plan 2019-2023.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0). National Library Statistics. Available: www.libsta.go.kr
- Noh, Y. H. & Shin, Y. J. (2019).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Operation Status of the Medical Library in the Hospital.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2), 61-96.

- Noh, Y. H., Chang, I. H., Kang, J. H., Shin, Y. J., & Kwak, W. J. (2020).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Mid- to Long-term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the Library in Gimpo C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1), 227-253.
- Presidential Committee on Library & Information Policy of Korea (2019). *The 3rd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d Plan 2019-2023*. Sejong: Presidential Committee on Library & Information Policy of Korea.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0). *data.seoul.go.kr*. Available:
<http://data.seoul.go.kr/dataService/boardList.do#submenu1>
- Yongsan-gu (2019). *Yongsan Statistical Yearbook*. Seoul: Yongsan-gu.
- Yoon, H. Y. (2019). Current Status and Strategies for Public Librarie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2), 69-90.